

카무이민타라—신들이 노는 정원

아이누사람들은 다이세츠잔(大雪山)을「카무이민타라」라고 불렀다.
꽃들로 가득한 광대한 고산대만큼 이 말이 잘 어울리는 곳은 없을 것이다.

다이세츠잔은 홋카이도(北海道)에서 가장 높은 산군이다.
산 정상에 서면, 광대한 고산대를 볼 수 있다. 산기슭에는 대규모의 수해(나무바다)가 펼쳐져 있고, 깊은 협곡이나 숲에 둘러싸인 호수와 습지도 있다.
일본을 대표하는 산악공원의 하나이다.



고시키가하라(五色ヶ原)에서 바라본 토무라우시산